

‘제19회 여성주간’ 기념 제2차 대전성평등정책포럼 개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7월 4일(금) 구충남도청 2층 중회의실에서 여성정책에 관심 있는 대전 여성 활동가, 여성관련기관 종사자, 교수, 연구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성인지예산 심의양상 분석’의 주제로 2014 제2차 대전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지방의회 내 성평등/여성(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및 성인지예산서 검토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김희경 대표(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주혜진 센터장(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진행으로 박수범 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정현 의원(대전광역시의회), 백계경 주무관(대전광역시), 심현영 의원(대전광역시의회), 정연정 교수(배재대학교)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희경 대표는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서 심의의 장애요인으로 심사를 지원하는 매뉴얼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문제점과 개별사업의 성불평등 요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의회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 경험의 부족해 성인지예산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과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성주류화 정책이 반영·실현 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지역의 활동가 양성을 주장했다.

박수범 연구원은 지자체가 적절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서 작성 내용과의 적합성을 지방의회 심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여성 기초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간의 성인지예산제도의 관심 및 운영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정현 의원은 양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 강화를 강조했다며, 정책추진 주무부서와 성인지예산 작성 부서가 다르는데 초래되는 의견 불일치의 해결, 시의회 내 심의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에 대한 문의는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042-530-3550)로 할 수 있다.

대전경제교육센터 “쉽게 이해하는 거시경제 교사직무연수” 개최



대전경제교육센터(대전발전연구원 부설, 기획재정부 지정)는 7월 21일(월), 대전 선사인호텔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경제교과 교수법의 향상과 학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대전경제교육센터는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2014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경제수업 마스터 직무연수를 개최하였다. 연수과정명은 “경제수업 마스터 직무연수 - 쉽게 이해하는 거시경제”이며, 본 과정은 중·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 중에서 거시·국제 단원의 기본 개념을 실생활과 연계한 실습 위주로 구성된 집합연수이다.

금일 실시된 경제직무연수는 거시경제의 이해, 세계 경제의 발자취 1·2, 통계레시피 등 37개의 교과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며 거시경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세계 경제의 발자취 1·2 강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연대별 시간대를 모듈별로 조사 및 발표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마지막 강의는 교사들이 직접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해 보으로써 실생활에서 통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험해 보는 활동 수업으로 이루어 졌다.

대전경제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경제직무연수는 7월 21일(월)부터 7월 25일(금)까지 5일간 총 30시간 실시 하였다.

“ 대전경제교육센터,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장애인경제교육 실시 ”



대전경제교육센터(대전발전연구원 부설, 기획재정부 지정)는 7월 9일(수)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대전시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통신판매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장애인경제교육은 '가치있는 소비'라는 주제로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휴대폰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활용 등의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주의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들은 특히 공짜폰 안내 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사기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요금이 부과되는 등의 피해사태가 실생활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교육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그리기 등의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올해 대전경제교육센터는 대전소비자연맹과 협력하여 각 구별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총 25회의 장애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d](#)

“ 시민 시정참여 보장, '대전시민행복위원회' 설치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 개최 ”



대전시는 17일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시민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전시민행복위원회 설치를 위한 시민행복 워킹그룹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행복위원회의 출범 일정을 제시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시에 전달하는 기구로, 권선택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의 일부이다.

대전시에 의하면 시민행복 워킹그룹은 다음 달 말까지 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박노동 박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시의원 대학 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언론인 등 13명으로 구성된 시민행복 워킹그룹은 이날 시민행복위원회의 규모, 운영방식, 취급 현안 등을 놓고 토론을 하였다. 워킹그룹 주장으로 선출된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민행복위원회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치밀하게 운영해나기겠다"고 말했다.

권선택 시장은 "시민행복위원회는 지역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푸는 민선 6기 대전시의 핵심조직이 될 것"이라며, "일차 위원회의 탄생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d](#)

2015년도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 수요조사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중장기 개발전략 및 지역경제발전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과제 수요파악을 위해 우리연구원에서는 홈페이지(www.djdi.re.kr)에 2015년도 연구과제 제안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과제 선정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제안기준

- 사회적, 정책적 환경,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며, 설립목적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구과제
- 시 출연기관으로서 과제수행의 적합성 및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 시정 정책입안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과제
- 연구원 내 부서간 협동연구 및 국내외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역량 결집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과제

2. 제안방법

- 홈페이지 : www.djdi.re.kr 공지사항
- 작성방법 : 연구과제 제안서(양식)에 따라 분량 없이 자유롭게 작성
※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 제출방법 : 우편 / 팩스(042-530-3508) / 이메일(jsh83@djdi.re.kr)
- 제출기한 : 2014년 8월 22일(금) 까지
- 문의 :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 조세희(042-530-3506) [d](#)

대전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상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염 인 섭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전광역시에서 발행한 『2010년 근대문화유산 조사보고서(2010.10)』에 따르면 2003년 조사 이후 7년 간 근대건축물이 27건 멸실되었고, 이후에도 일·양 절충식 가옥 일명 뽕죽집(등록문화재 337호)이 무단철거(2010년)되었다가 이전복구 중에 있으며, 구 사범학교부속학교 교장사택(등록문화재 169호)은 화재로 전소되는 등 근대건축물 보존과 활용에 관한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대전시에서도 2011년도에 대전광역시 근대건축물 보호에 관한 자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4년 현재 근대건축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시 근대문화유산 중에서도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대전시 근대건축물(문화재, 비문화재 근대건축물 등에 의해 형성된 근대역사환경의 문화적 속성 및 공간적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정한 관리체계 및 평가체계 등의 형태로 제시한다.

1) 대전광역시 근대건축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매 5년마다 근대건축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본방향, 현황과 보전관리 방안 지정 및 보호에 따른 지원,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그림 1〉 대전시 중구대흥동 일·양절충식 가옥 '뽕죽집'



〈그림 2〉 대전시 중구선화동 구 사범부속학교 교장사택 전소 상(위쪽)과 하(아래쪽)의 전경



〈그림 3〉 대전시 1930년대 주요 근대건축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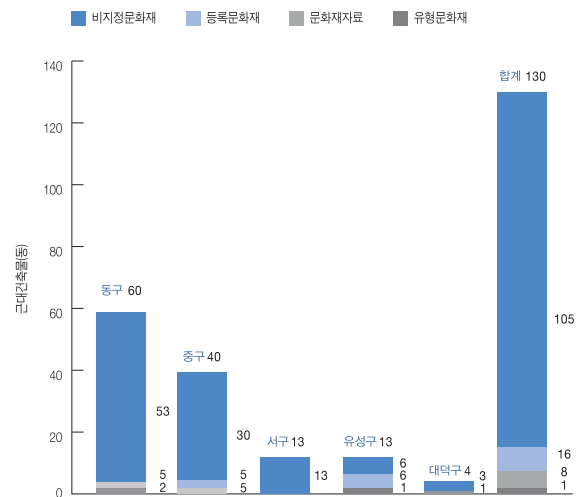
〈그림 1〉 대전시 도시재개발 추진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재가 훼손되었다가 이전·복구된 국내 최초의 사레(사진출처: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건축기본계획, 2012.10)

〈그림 2〉 대전의 한 종교단체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구 사범부속학교 교장사택(등록문화재 169호)은 2011년 화재로 인해 현재는 문화재가 말소된 상태임.

〈그림 3〉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무덕전(상무관), 충남도청, 대전중학교, 대전역이며, 현재(2014)는 일부 증축되었거나 멸실된 형태로 옛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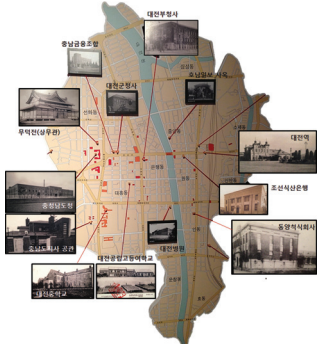
2 대전시 근대건축물 관리현황

• 대전의 근대건축은 1904년 경부선 철도 대전역 개역(開驛)을 시작으로 1928년 대전역신축과 1932년 충남도청 준공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대전역과 구 충남도청을 축으로 하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근대건축물이 분포하기 시작하였음.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합계
유형문화재	0	0	0	1	0	1
문화재자료	2	5	0	0	1	8
등록문화재	5	5	0	6	0	16
비지정문화재	53	30	13	6	3	105
합계(자치구별)	60	40	13	13	4	130

〈그림 4〉 대전시 근대건축물 현황(자치구별 지정·비지정 문화재구분: 2010년도기준)



〈그림 5〉 1900년대 초반대전 시계(市界) 및 주요근대 건축물 현황도
(자료: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2014)

- **(지역별 분포현황)** 중구는 대흥동, 선화동 및 은행동 등을 중심으로 업무 시설과 집회시설이 많은 편이고, 그 외 지역에는 주거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 동구는 중동, 인동, 원동, 소재동, 삼성동 등에 업무시설과 산업 시설이 많은 편임. 대덕구는 시 지정 문화재자료인 오정동 선교사(한남대학교 내 위치)이 대표적임. 서구는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건축물은 없고 괴곡동, 봉곡동 및 원정동 일대에 주거시설 및 종교시설 위주로 분포되어 있음. 유성구는 추목동 일대에 시 지정 유형문화재인 수운교천단(종교 시설; 사찰을 비롯하여 관련 등록문화재가 6개동이 모여 있고, 유성구의 옛 지명인 진잠²⁾(덕명동, 장동, 구암동, 봉명동, 원내동) 일대에 6개동(주거, 숙박,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기능별 분포현황)**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된 1930년대를 전후하여(1928년 대전역 신축, 1932년 충남도청 준공 등) 건립된 공관을 비롯하여 1960년대 건립된 공공업무 서비스 관련 시설들이 대부분이며, 원도심 지역에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음. 대전역 주변에 위치한 철도시설 관련 산업유산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그 밖에는 일반 지역업 관련 공장, 공업사, 인쇄소 등이 있음. 숙박시설은 유성구에 위치한 구 유성온천 승리관현 유성관광호텔³⁾이 유일하며, 의료시설도 구 대전시립보건의소(현 동구보건소)와 구 대전한의원(현 대전대학교 부설 한방병원, 해화병원) 2개동에 불과함. 그 밖에 교육시설, 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은 주로 원도심 지역(중구, 동구)에 분포하고 있음. 주거시설은 대전시 전체 근대건축물 중 약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충청남도 관사촌과 충청남도 도지사공관 만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소유의 주택에 해당함.



〈그림 6〉 유성관광호텔(대전시 유성구 소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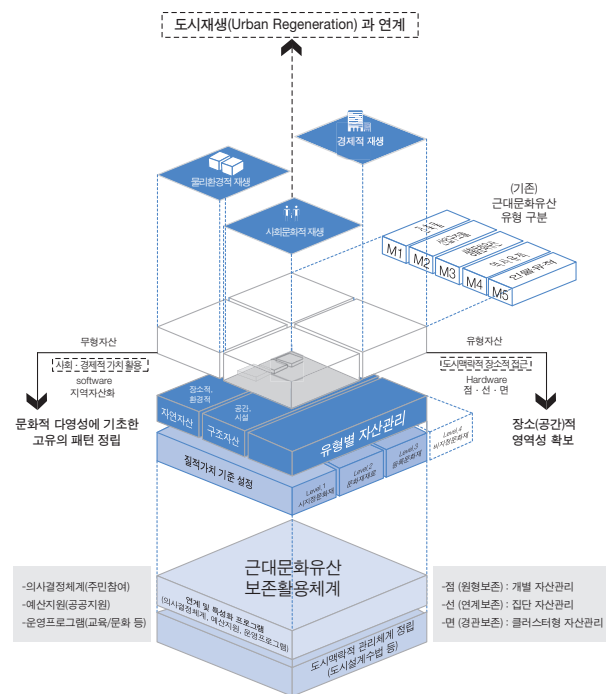
- **기타시설(영렬탑, 구 대전형무소 우물 및 망루):** 비 건축물에 해당하는 근대화유산으로서 대전시 중구중촌동 내 구 대전형무소는 철거되었고(1984년 교도소 이전과 동시에 철거), 망루와 우물만이 보존되고 있음.



〈그림 7〉 구 대전형무소 망루(좌) 및 우물우(우)전경

- 2) **진잠(鎭柵)**(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본래 백제의 진한현(眞漢縣, 또는 眞峴縣)이었는데, 757년경 덕왕 16진령(鎭綱)이라 고쳐 황산군(黃山郡)의 영현으로 삼았다. 940년(태조 23)에 진잠현으로 고쳤으며, 1018년(현종 9)공주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에 현감을 두었다. 1895년(고종 22)에 군으로 승격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대덕군으로, 1989년에는 대전직할시가 되면서 대덕군이 폐지되고 유성출장소 관할지역과 대덕군 진잠면 등이 합하여 유성구가 되었으며, 1995년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바뀌었다.
- 3) 유성관광호텔은 1996년 준공이후, 유성지역 온천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4차(1979, 1982, 1986, 1992)에 걸쳐 증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유성 관광특구 내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소가 잘 관리운영되고 있는 편임

3 근대건축물 보존·활용의 관리체계 구상



〈그림 8〉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춘 근대건축물의 보존활용의 관리체계의 기본구조

가. 도시매락적 접근: 공간적 영역성 구축 차원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을 고려한 근대건축물의 입체적 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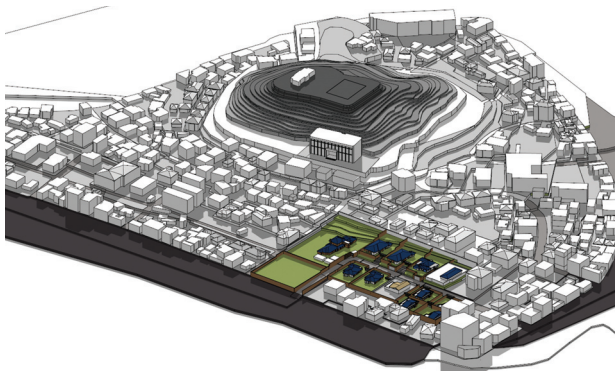
- 근대 건축물(점)을 중심으로 점(건축물), 선(가로), 면(구역) 영향권 범위 설정
- 근대 건축물을 기본 2가지 유형 즉, 보존유형복원, 보존과 활용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단일 건축물(점)을 비롯한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선)를 고려한 권역(면) 설정을 통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로 완성되어야 함.

1 개별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점)

- 건축물 자산관리 정보체계 구축 : 근대 건축물 자체의 규모, 구조, 건립년도, 건축양식, 주요 연혁 등에 대한 기본적인 DB를 통합하여 구축하되(기존 근대문화유산조사보고서 활용), 3D 공간정보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이 함께 구축될 필요가 있음.
- 보존형 : 근대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단계별 건축수법(원형보존, 부분보존, 개수보존, 이축보존, 원형복원 등을 유형별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 활용형 : 근대건축물의 건립 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부는 가능한 한 보존하면서 내부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여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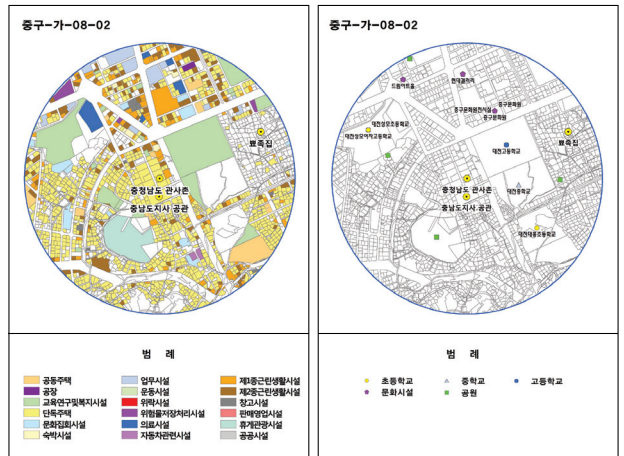
〈그림 10〉 구 충남도청사 및 경찰청사 이전부지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 적용(예시)



〈그림 9〉 충청남도 관서촌(중구 대흥동) 및 주변지역 3D 모델링 작업

2 건축물 간 연계 및 경관보존에 중점을 둔 클러스터형 관리(선+면)

- 연계보존에 중점을 둔 집단적 자산관리(선) ▶ 가로경관 제어수단
- 경관보존에 중점을 둔 클러스터형 관리(면)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및 문화지구, 역사문화상징지구, 역사문화지구, 미관지구 등의 관련법제도를 활용한 경관보존
- 근대건축물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세부건축수법 및 가상 시뮬레이션 적용: 토지이용, 건축밀도, 도시계획규제 등 3차원적 공간구성 및 주변과의 연계성 고려하여 역사적 건축문화와 근현대 건축문화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그림 11〉 주변의 건축물 용도와의 조화를 고려한 장소(공간) 단위 접근방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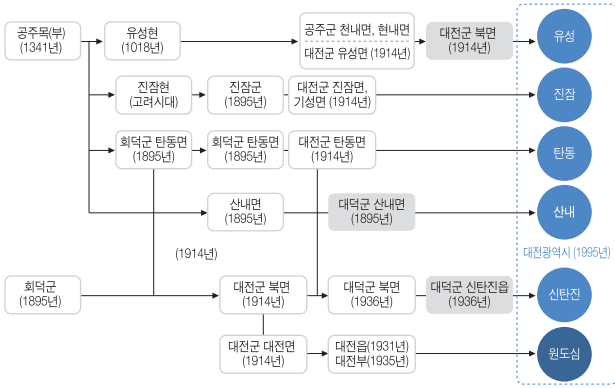
나. 문화맥락적 접근: 지역자산의 다양성 활용 차원

- 지역유산으로써의 근대건축물을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내 어메니티 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자산의 연계 및 특성화 자원의 전략적 관리체계 정립
- 중장기적 차원에서 근대건축물로 인한 기존의 독특한 맥락은 유지하고, 잠재력을 고려한 관광자원화 등 점진적 개발(변화)과정을 유도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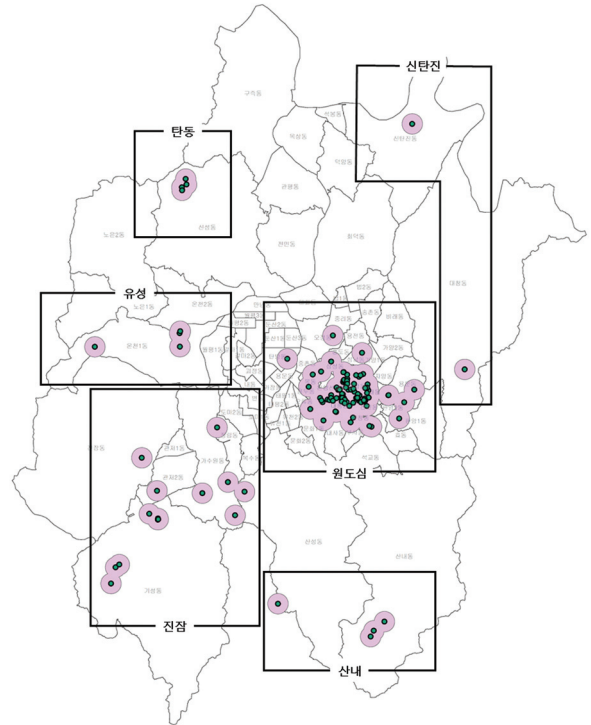
• 근대건축물 관련 보존 및 활용의 원칙 설정 및 관련 조례의 활용과 보완

- 대전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 문화재 자체의 개별관리보다는 집단관리 또는 클러스터형 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대전광역시 근대건축물⁴⁾ 보호에 관한 조례 :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들이 현대적 도시환경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수한 건축자산 확보와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면 단위 관리체계 구축 : 근대건축물과 현대건축물을 도시내 동일한 건축자산으로 인식하여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와 경관적 특성을 보전

4)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5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19세기 개항기부터 건설·제작·형성된 것



〈그림 12〉 대전시 근대기(1876-1960년)의 주요지명의 유래



〈그림 14〉 대전시 근대역사환경을 고려한 근대건축물 관리구역 설정안

다. (지원책) 근대역환경의 정체성에 기초한 권리구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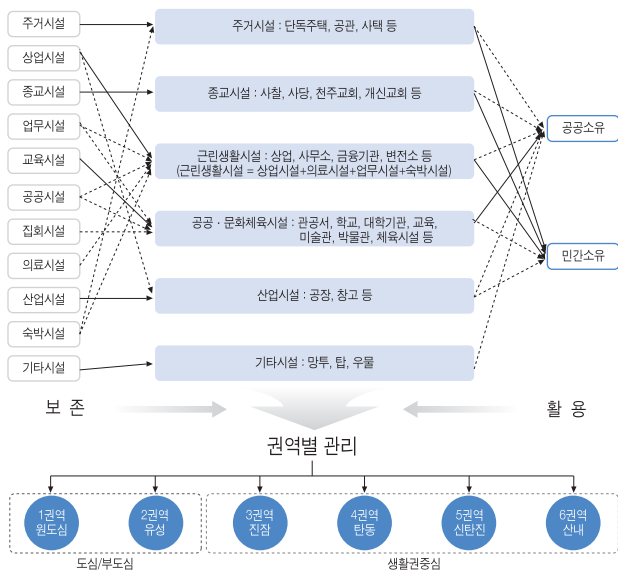
1 문화적특성에 기초한 근대건축물 관리구역 설정 : 지역별 정체성 반영

· 본 연구에서 설정된 6개 권역은 2014년 현재, 대전광역시 시계(市界)의 원형을 이룬 시점 즉, 193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2 현대도시계획체계를 고려한 근대건축물의 용도관리(합리적 기능부여 및 관리)

· 근대건축물 건립 당시의 법제도적 여건과 현행 여건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행 법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근대건축물 종별 용도구분의 합리화 작업이 요구됨

· 건축물 종별 용도구분을 축소기준 11종 6종: 주거시설, 종교시설, 근린 생활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산업시설, 기타(비건축물)



*) 근대건축물 용도구분 : 2010 근대문화유산 조사보고서의 조종별 시설구분으로 정리함. 현대건축물 용도구분 : 도시·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및 건축법시행령의 시설구분에 따른 분류함.

〈그림 13〉 대전시 근대건축물의 용도 및 소유권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방안 개념도

5 대전광역시(2014), 대전근현대사전시관

4 근대건축물 보존/활용의 관리기준(안) 설정

해당 근대 건축물의 보존가치와 활용도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적 범위를 제시하고자함.

〈표 1〉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 및 평가기준표(안)

단계별 관리기준			평가항목				중요도 기준
유형	단계	건축수법	지역 상징성	연계 가능성	활용 가능성	추진 시급성	가중치 (우선순위)
보존	1단계	원형복원					
	2단계	원형보존					평가항목별 또는 유형별 표준화된 상대적중요도 기준 적용
	3단계	부분개수/이축					
활용	1단계	최소활용					
	2단계	부분활용					
	3단계	적극활용					

▲ 해당 유형에 따른 단계별 관리범위 설정 : 단계별로 관리수준과 내용적 범위를 조절

△ △ △ △ △

▲ 보존 상 중점 고려사항 활용 상 잠재력 평가 → 중요도 선정으로 고려되어 세부항목이 구성되었음.

〈단계별 관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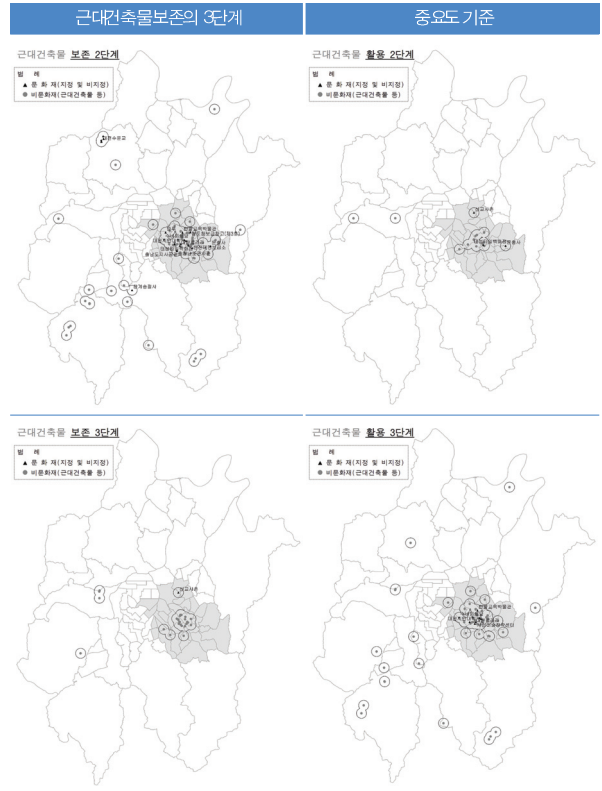
- ① 보존 :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근대건축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고, 해당 건축물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보존범위를 마련하기 위함.
 - 1단계(원형복원) : 건축물의 가치가 매우 높아 중전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상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재현하여 보존하는 것
 - 2단계(원형보존) : 비교적 건축물의 가치가 높은 편이어서 증축이나 부분 철거 없이 건립당시의 양식과 규모를 유지하는 것
 - 3단계(부분보존/개수보존/축보존) : 비교적 건축물의 가치가 높지 않은 편이나 건물이용 목적에 맞게 활용이 요구되는 것
- ② 활용 :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활용범위를 설정
 - 1단계(최소활용) : 건축물의 가치가 높거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소극적으로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
 - 2단계(부분활용) : 비교적 건축물의 가치가 높고 부분적으로 시설활용이 필요한 경우
 - 3단계(적극활용) : 건축물의 사용목적에 따라 역사적건축물을 경제적으로 보전하는 방법

〈평가항목〉

- ① 상징성 : 지역 랜드마크(이미지) 형성 기여도, 지역내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따른 기여도 지역 근대문화의 대표성 정도 등
- ② 연계가능성 : 해당 권역 또는 지역 차원에서 주변의 건축물, 가로, 공간, 시설물, 사건, 활동, 분위기 등과 결합되어 문화관광자원 등으로 개발 또는 활용이 가능한 정도, 지역 내 문화산업 및 문화예술자원 발굴 등 연계 프로그램 및 클러스터화 형성가능성 정도 등
- ③ 활용가능성 : 근대건축물의 역사성에 기초한 인지성, 차별성 및 관광자원화 가능성 정도, 해당 근대건축물 자원의 입지를 둘러싼 다양한 여건과 규모의 적합성 정도,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 개선 기여정도,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고유의 역사문화 경관형성 기여도 등
- ④ 추진시급성 : 해당 근대건축물자원의 멸실·훼손 위험 정도, 주변의 재정비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영향성 정도, 관련 주체들의 참여의지(자치체, 지역기업, 시민 협력체계 등) 및 의사결정체계, 지자체의 자원 역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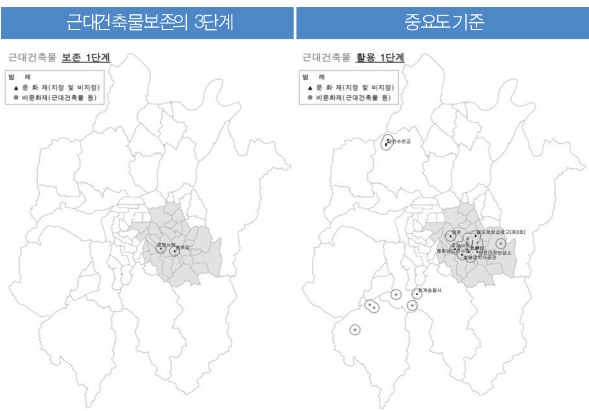
〈가중치 설정〉

평가항목 ①~④을 중심으로 근대건축물의 보존을 위해 지역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에대한 차별화된 기준을 설정하거나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잠재력을 높여주기 위한 상대적중요도(가중치)를 적용



5 정책적 제언

최근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여 근대건축물을 단순히 문화재 보호에 국한하지 말고, 새로운 도시 및 지역정책 패러다임에 맞게 근대건축물을 현대적 도시환경 속에서 도시재생을 목표로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맥락과 문화맥락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관리체계 속에서 근대건축물을 둘러싼 공간적 영역성 구축과 지역자신의 다양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관련 법·제도가 주로 근대건축물의 문화재적 가치보호에 국한된 규제중심이 었다면, 앞으로는 근대건축물이 위치해있는 장소(도시)를 중심으로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자신의 가치보존 및 활용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동향

최근 대전지역경제는 전월대비생산이부진하고 수출과수입이 감소했지만 소비가 호조세이고 고용상황도 양호한 가운데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동월대비로도 생산과 소비가 호조세를 보이고 고용상황도 양호하며 건설도 활발하고 수출과수입도 등 대외거래등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물가도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인 하강국면을 보인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4년 들어 소폭씩 하락하였으나, 3월부터 반등하여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월 산업

활동은 광공업생산의 큰 폭 하락과 공공행정, 건설업 감소로 전산업생산이 2개월째 부진한 모습이다.

전산업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소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투자도 견고하지 않아 경기회복세가 부진한 모습임 아울러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연화 약세 등 대외위험요인도 여전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는 한편,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인정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와 함께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 기

-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인 하강국면을 보인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4년 들어서 소폭씩 하락하였으나, 3월부터 반등하여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다.

생 산

- 2014년 5월, 전월대비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도 감소하여 전월보다 위축된 모습이나, 전년동월대비로는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도 증가하여 3개월째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생산은 전월의 기저효과, 수출증가 등 긍정적인 요인과 내수회복 부진 등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있다.

소 비

- 2014년 5월, 전월대비 유류소비량을 제외한 에너지소비만 감소하였을 뿐 관찰지표 대부분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며, 전년동월대비로도 유류소비량을 제외한 에너지소비만 감소하였을 뿐 관찰지표 대부분이 증가하여 지난달보다 개선된 모습다. 향후 소매판매는 소비 속보지표별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개선세가 견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고 용

- 2014년 5월, 전월대비 취업자가 3개월째 증가하고, 실업자는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도 하락하여 전월에 이어 양호한 모습이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실업자가 감소하고 실업률도 하락하여 고용상황은 개선되는 모습이다.

물 가

- 2014년 6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섬유제품과 집세가 상승하였으나, 농축산물의 대폭하락과, 석유류, 내구재, 개인서비스에서 하락하여 전월대비 0.1% 하락하였다.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4%수준으로 지난달의 1.4%수준과 동일하고, 최근 물가는 매우 안정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금 용

- 2014년 6월 국내금융시장은 이라크 정정불안 등 대외요인으로 월초 크게 하락하였다가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 개선으로 반등하였으며, 환율은 하락하였다.

대 외 거 래

- 2014년 5월 전월대비 수출과수입 모두감소함.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은 기계류,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광산물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농림수산물, 전자전자제품, 화학공업제품, 잡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5개월째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전년도 2월부터 흑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4년 3월은 흑자폭이 4개월째 확대되고 있다.

건 설

- 2014년 5월, 토지거래면적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로 반등하였고, 건축허가면적은 5개월째 증가하고 건축착공면적도 2개월째 증가하였다. 미분양주택도 전월보다 감소하여 최근 건설경기는 3개월째 호조세를 보이는 모습이다.